

화순군, 2회 연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니세프 한국위, 2기 최종 갱신 4년간 인증 유지...아동정책 결실 2기 14개 부서·49사업 확대키로 "미래세대 권리 실현 약속이행"

화순군이 2회 연속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났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갱신받았다.

당초 화순군은 2020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다.

4년 동안의 아동정책과 아동친화 공간 조성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하게 될 아동친화 정책과 사업을 계획해 지난해 12월 인증갱신을 신청한 결과 지난 5월 서면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과해 2일 최종 확정을 받게 됐다.

화순군은 그동안 아동의 참여권 확대,

아동권리 교육 강화, 아동친화공간 조성, 아동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아동청소년의회를 매년 내실 있게 운영해 아동의 정책·사업 제안 기회 제공, 아동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아동참여기구 성과를 크게 인정받았다.

제2기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간은 2029년 6월1일까지 4년간 유지된다.

화순군은 제2기 아동친화도시 출범과 더불어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 중점사업을 14개 부서에서 49개 사업으로 확대 및 모니터링 실시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및 캠페인 확대 △미취학 아동 등 다양한 아동의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아동권리대변인의 역할 강화를 위한 아동권리침해사태 관리 및 고충 처리 △다양한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참여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내실 있



화순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최근 군청현관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갱신' 현판식을 열었다.

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아동을 사회의 주체로 존중하고,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동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다"며 "이번 갱신을

계기로 아동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삼서면 공중목욕장 문열어 장성군, 매주 화·목·금요일

전라남도 장성군이 지난 18일 삼서면 공중목욕장(삼서면 해삼로 1138) 준공식을 가졌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그동안 삼서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없었다. 목욕탕에 가려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해 불편이 따랐다.

장성군은 전라남도에 공중목욕장 건립을 건의해 도비 포함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3년부터 현 위치에 건립을 시작해 이날 준공에 이르렀다.

약 120평 규모(대지면적 1755㎡·바닥면적 410㎡)로 냉온탕, 사우나, 찜질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어린이·노인 3000원, 일반 3500원이며 매주 화·목·금요일에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운영은 삼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았다. 이용 문의는 직통전화(061-394-0806)로 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삼서면민들의 숙원을 이루게 되어 뜻깊다"며 "주민 건강 증진과 소통, 교류의 장소로 오래도록 사랑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3분기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화순청소년수련관, 선착순 176명 7월5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라남도 화순군청소년수련관이 '2025년 3분기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17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22일 화순군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 분기 다양한 체험 중심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진격의 '스포츠' △다트 어택 △그림책 속 레시피 '리딩푸드' △반짝이는 '발레' △전략의 시작 '체스' △나도 '베이킹' 명장 △홀드업 '클라이밍' △그림 밖 상상력 '창의 미술' △'통기타' 초급 △'미술' 비하인드 △'통기타' 중급 △돌이랑 놀자 '바둑' △현의 율림 '바이올린' 등 총 13개 분야로 청소년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3분기 프로그램은 7월17일부터 9월28일까지 운영되며 화순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7월5일부터 10일까지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누리집 (<https://hwasunyouth.kr/>)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기 강좌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은 서둘러 신청하고 참가 확정자는 추후 문자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소년수련관 누리집 또는 061-379-5167(문화 프로그램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우 화순군 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획한 배움의 장이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신감을 얻고 마음껏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지난 19일 담양군 보건소 직원들이 관내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펼쳤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전라남도 담양군이 지난 19일 담양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했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바쁜 업무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담과 검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관리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공된 주요 서비스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기초 건강검사 △인바디 측정 및 운동가이드 제공 △금연·절주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고위험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기 혈압·혈당 수치 확인 △합병증 관리법 △뇌졸중·심근경색 조기 증상 대

응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직장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복숭아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 화순군, 고품질 생산 목표

전라남도 화순군은 지난 17일 복숭아 생육이 본격화되는 6월을 맞아 농업기술센터에서 '복숭아 기술 보급 확산지원단'을 운영, 현장 중심의 기술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 보급 확산지원단은 작목별 전문 지도사, 외부 민간 전문가,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생육 상황 진단, 병해충 방제, 수분관리, 과실 비대 및 착색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이상기후와 병해충 발생 증가로 인해 복숭아 생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수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 변화에 따른 생리장해 예방, 나무 수세 조절, 수확기 품질 유지를 위한 관수 및 시비 전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류창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복숭아는 고온과 장마 등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한 작목으로 시기별 맞춤형 기술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현장 컨설팅과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지역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함평군, 지역 관광후기 이벤트 진행

20명 선정 선물 증정

전라남도 함평군이 봄에 이어 여름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함평군은 23일부터 오는 8월29일까지 '함평의 여름' 관광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객의 생생한 후기를 통해 색다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계절 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함평을 찾은 관광객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커뮤니티)관광후기)에 여름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함평군 관광 사진 2장 이상과 함께 후기를 게시하면 된다.

게시된 후기는 향후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7월 중 처음 개최되는 '함평 물놀이 페스타(가칭)'와 연계 운영돼 축제를 찾는 관광객도 자연스럽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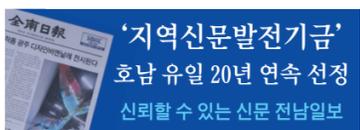
군은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해 3만원 상당의 함평 농특산물 선물 세트를 증정

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9월 중순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욱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객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진솔한 후기를 통해 함평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벤트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